광주, 코로나 신규확진 한달새 9배↑

전담병상 가동률 55.9% 잔여병상 30개…재감염율도 증가세
요양병원·시설 비접촉 면회…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의무

광주시의 코로나19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달보다 9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광주시는 요양병원과 시설을 비접촉 면회로 전환하고, 전담병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광주시는 이날부터 요양병원 및 시설 등 고위험 취약 시설의 모든 종사자에게 주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했으며, 면회도 비접촉으로 전환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전파력 강한 BA.5 바이러스 확산,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여름철 실내활동과 재감염 증가 등에 따른 재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시민에게 개인별 위생수칙 준수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1107명이 확진됐으며, 8955명이 격리치료 중이다. 전남지역도 이날 992명이 신규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광주시의 지난 주 주간 평균 확진자 수는 1536명으로, 6월 5주간 주간 평균 확진자 수(171명)의 8.9배나 됐다.

재감염율도 지난 5월은 전체 확진자의 1%(280명), 6월은 2.4%(140명)에 불과했지만, 이달 들어 현재 4.9%인 918명으로 늘어나는 등 재감염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에 따라 광주시의 5개 의료기관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도 55.9%까지 뛰어 오르는 등 전체 68개 병상 중 38명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연령대별 발생상황은 활동량이 많은 10~20대가 36.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전파돼 점차 다른 연령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시스템 강화를 위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344곳을 지정하고, 이 중 검사와 진료, 전용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도 174곳이나 운영 중이다.

광주시는 전담치료병상도 현재 68개에서 162개로 94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확산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병상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휴일 감소세 영향에도 3만58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일 전인 지난 18일(2만6279명)의 1.36배, 2주일 전인 11일(1만2678명)의 2.83배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도 4월 25일(3만4361명) 이후 13주 만에 가장 많았다.

이달주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지금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개인방역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많이 더우시더라도 1일 3회 이상 충분한 환기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주 손씻기, 여름철 냉방기 올바른 사용 등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질병청,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계획 다음달 말 발표

질병관리청은 25일 코로나19 개량 백신 접종 계획을 다음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개량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도입시기 및 가용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정부는 제약사들과 백신 계약을 맺을 때 개량 백신이 개발되는 경우 개량 백신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연내 mRNA 백신(화이자, 모더나) 도입물량은 약 6천만 회 분으로, 하반기 접종에 충분한 양이다.

개량 백신은 제약사들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해 개발해온 백신이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보다는 중증화나 사망을 막는데 효과가 있었던 것에 비해 오미크론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교적 최근 출현해 국내에서도 우세종화된 BA.5 변이나 면역회피 특성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BA.2.75(켄타우로스)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다.

질병청은 "개량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제약사와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효과적인 접종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상시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방역상황, 신규 변이 유행 동향, 개량 백신 개발 동향, 국외 접종 정책 등을 모니터링해 세부 접종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 7일과 13일 모더나, 화이자와 각각 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에는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개량 백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다만 질병청은 세부 접종 전략에 대해서는 유행하는 변이의 유형과 이에 대한 개량 백신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남도, 축산농 사료구매자금 1972억 추가 지원

융자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경영안정 대책 마련

전남도가 사료가격 인상, 수입축산물 무관세 적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1972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246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추가 확보와 함께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하면서, 상환기간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전남도의회에서 배합사료 가격 인상에 따른 특별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비와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융자 지원에 쓰인다.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돼지·가금 사육농가는 6억원까지,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까지다.

다만 돼지·가금사육 농가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는 한도를 9억원으로 늘렸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해마다 500억원 수준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세운 491억원을 모두 지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 한국은행 사거리 교통전환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7일부터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에 따라 상무중앙로 한국은행 사거리 교통전환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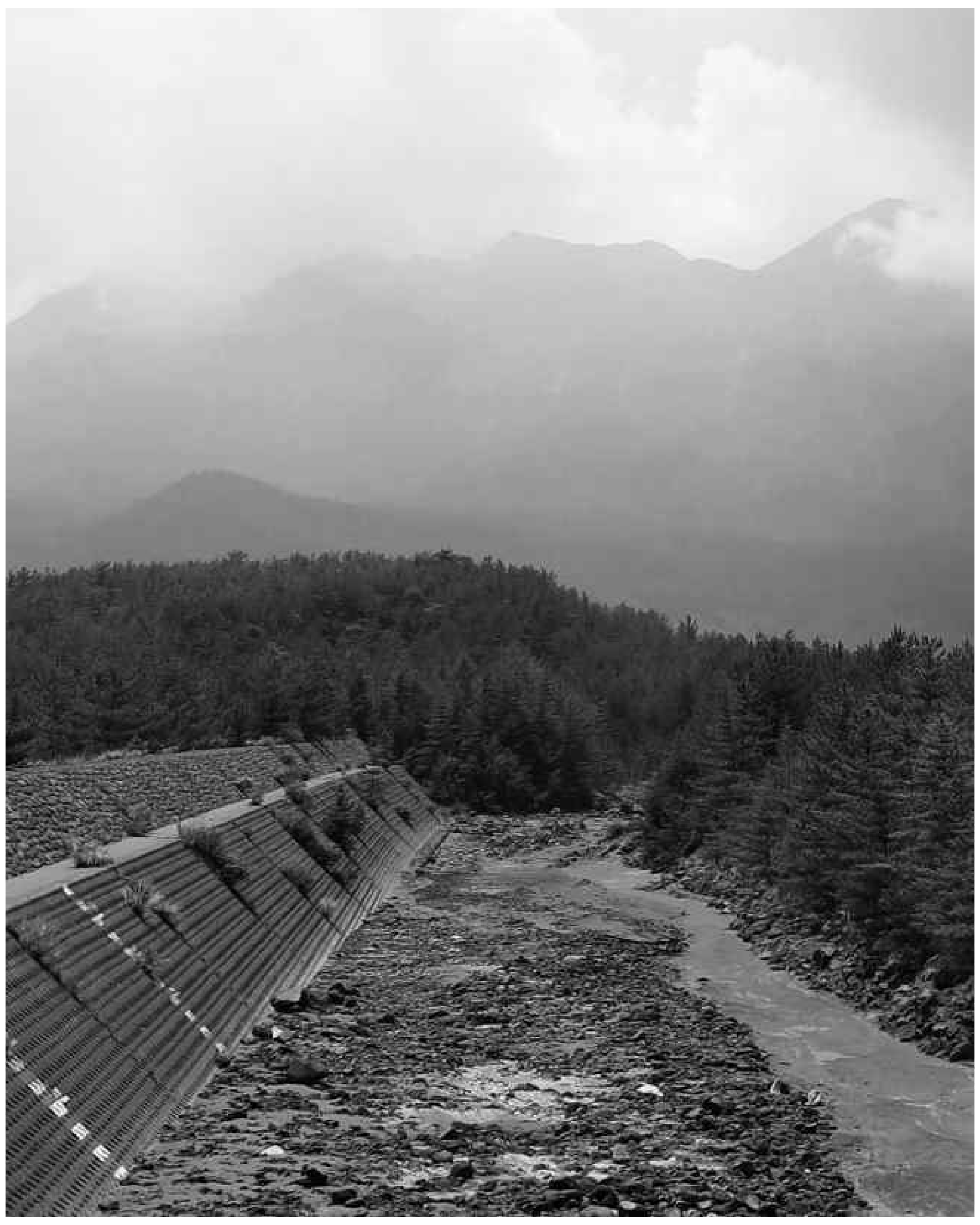
한국은행 사거리 앞 도로 복공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장물 확인과 가시설 공사를 위해 3단계로 나눠 오는 12월까지 교통전환을 할 계획이다.

기존 공사구간과 같이 한국은행 앞 5개 차로는 유지하지만, 도로 중앙선 부근에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은행 앞 (상무역→유촌동 방향) 3개 차로가 Y형 도로로 일부 구간을 분리해 시행한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상무중앙로 공사구간 연장에 따라 도로 상황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해 공사현장 주변에 안내표지판과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백남인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은 "상무중앙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가급적 출퇴근 시간 주변 우회도로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5일 일본 규슈섬 남쪽 가고시마현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 모습. 사쿠라지마 화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강하게 분화를 일으켰다.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레벨5' 를 발령하고 분화구에서 반경 3㎞ 이내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日 규슈 활화산 이틀 연속 강하게 분화

최근 20년 새 세 번째 커…3㎞ 내 지역 주민에 피난 권고

일본 규슈섬 남쪽 가고시마현에 있는 활화산 사쿠라지마가 이틀 연속 강하게 분화를 일으켰다.

25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사쿠라지마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6시 31분에도 분화했다. 이날 분화로 분연(噴煙·화산 분화구에서 연기처럼 솟아오르는 화산가스나 알갱이가 작은 화산재)이 화구에서 약 2.2㎞ 높이까지 솟아올랐다.

기상청은 화산재가 약 2.5㎞ 높이까지 솟아오르면 북동쪽으로 날아가 떨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지면에 쌓이는 화산재의 양은 화구에 인접한 지역이 0.1~1㎜ 높이이고, 여타 지역은 0.1㎜ 미만일 것이라고 기상청은 내다봤다.

사쿠라지마는 24일 오후 8시 5분에 분화해 분석(噴石,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굳은 용암 조각이나 암석 파편 등)이 화구에서 동쪽으로 약 2.5㎞ 떨어진 곳까지 날아갔다.

기상청은 분화구에서 반경 3㎞ 이내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난을 당부하는 '분화 경계 레벨5' 를 발령했다. 가고시마시는 분화의 영향을 고려해 사쿠라지마 섬안에 있는 유치원, 보육원, 방과 후 아동 시설 등을 휴원하도록 했다. 화산 물리학자인 이시하라 가즈히로 교토대 명예교수는 "분석이 이번과 같은 정도로 날아가는 것은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1970~1980년대 무렵에는 종종 있었지만 최근 20년 사이에는 상위 3위에 들 정도로 큰 분화"라고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연합뉴스

지분, 땅 삽·니·다
맹지는 안삽니다.
문의. 010-3605-5000

봄에 떠나는 그리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

꼭! 받아야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 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 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 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한빛전기(이하 "갑")와 주식회사 대진전력(이하 "을")는 2022년 7월 25일 개최된 각 주주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께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6일

"갑" 주식회사 한빛전기
전라남도 순천시 환선로 56-4(동외동)
대표이사 윤 안 숙

"을" 주식회사 대진전력
전라남도 여수시 쌍봉로 236, 3층(시전동)
사내이사 김 현 순

광주일보 창사 70주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1위!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향구독 220-0550